

[농축수산업 리더를 만나다] 이환형 광주 대 촌농협 조합장

안춘배 기자 | 승인 2026.02.23 08:55 | 호수 4210 | 19면

**‘변화와 혁신’ 강조
지난해 조합창립 이래
역대 최고 당기순익 실현**

**지난해 전국 단일 조직 유일
농산물 생산유통통합 조직 선정
농산물 유통 중심 메카로 자리매김**



이환형 광주광역시 대촌농협 조합장은 병오년 들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붉은 말처럼 정해진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내비쳤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이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창립 이래 역대 최고인 11억7200만 원의 당기순익을 실현하는 등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변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들의 실익증대는 물론 농가 편익제공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며 농업·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도시근교 농촌농협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경제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새로 선출된 농협중앙회 출신 경제통인 신임 강진우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대동단결해 전국 초우량농협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 조합장을 만났다.

올해 조합 운영방향은.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의 신념으로 전 임직원과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할 것을 다짐한다. 조합원과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청사를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580번지 7095㎡(2150평)에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모든 조합 사업의 초점을 농가소득 증대에 맞춰 추진하겠다. 농업인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실익사업을 발굴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전국 단일 농협조직으로 유일하게 ‘농산물 생산유통통합 조직(육성형)’으로 선정돼 앞으로 광주 농협 농산물 유통의 중심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협동조합의 원칙을 중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천하겠다.”

지난해 주요 경영성과는

“지난해 조합원과 전 직원이 동심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조합창립 이래 역대 최고인 11억7200만 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 이는 광주광역시 14개 농협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경영 효율성을 높여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게다가 지난해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301억 원이 늘어난 1988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예수금 잔액 1568억 원, 상호금융대출 1509억 원을 달성했다. 또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10억2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조합원 실익증대에 기여했다. 풋고추 공동선별장 소포장 라인을 증설했으며 자재사업 연도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발전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손해보험 4년 연속 헤아림 인증직원을 수상했다.”

조합원 영농편익지원 사업은.

“금융-경제협력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실시해 영농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작물에 필요한 우수 영양제와 적기 방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영농자재 리뉴얼을 추진해 품목별 자재관리와 영농상담기능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자재사업 연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맞춤형 자재공급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힘쓰겠다. 또 중소형 농기계 무상점검과 수리,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도 실시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은.

“복지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조합원 실익지원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육성과 조합원 자녀 장학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생 자녀 14명(1380만 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로조합원의 생일도 챙기고 있다. 매년 보리, 밀 수확작업과 수도작 항공방제 등을 지원하고 특화작목대상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교육과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생물 활용 브랜드 농산물 생산 지원, 논물 관리용 개량물고 지원,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산물 벼 수매운송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